

追悼文

八域 李智皓 教授 (1919~1986)

李 燦*



韓國의 地理學과 地理教育에 많은 영향을 미친 李智皓 교수는 1986년 9월 3일 午後 2時에 高血壓으로 서울大學校病院에 入院中 逝去하였다.

故 李智皓 교수는 1919년 5월 28일에 黃海道 遂安郡 道所面 玉儉里에서 出生하여 1941년에 平壤師範學校 尋常科를 卒業하였다. 師範學校를 졸업한 후 1年間 平壤에서 國民學校 教師로 在職하였다. 그러나 平壤師範學校 在學時節부터 가졌던 地理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國民學校의 教職을 떠나 日本留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1942년에서 解放直前까지 日本立正大學 地理歷史科에서 地理學을 專攻하였다. 立正大學의 地理科는 당시의 東京文理科大學의 田中啓爾 교수가 실질적인 主任教授였다. 李智皓 교수는 學問적으로 田中 교수의 地誌學 즉 地域地理에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초창기의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서의 강의 내용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解放後에는 龍頭洞에 위치하고 있었던 京城女子師範學校를 거쳐 1946년 8월에 公布된 「國立서울大學校 設置令」에 의하여 創立된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專任講師로 출발하였다. 즉 서울大學校 創立과 同時에 教授陣으로 參加하여 1984년에 停年退任할 때까지 38年間이라는 長期間에 걸쳐 地理學과 후배 양성에 專念하였다. 그동안 左翼과 右翼의 教授와 學生이 갈려서 國立大學校案 (俗稱 「國大案」)에 대한 贊成과 反對에 대한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려운 경우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李智皓 교수는 언제나 所信이 뚜렷했고 政治的인 理念보다도 學園守護의 선봉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새로 設立된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에 地理教師 養成을 위한 地理專攻課程을 만드는 것은 日帝의 植民地 教育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으로 시작하는 中等教育의 正常的인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일이었다. 解放當時에 大學에서 地理學을 專攻한 분의 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며, 日帝時代의 韓半島에 있었던 高等教育機關에서는 地理專攻 學科가 전혀 없었고, 中等敎員養成所에 소수의 地理專攻 學生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大學에 地理科를 창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惡條件에도 불구하고 社會生活科에 地理專攻課程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李智皓 교수의 地理學 發展을 위한 강한 意志와 努力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地理專攻은 독립학과로 승격되어 현재의 地理敎育科의 前身이 되었다. 1950년의 6·25 動亂은 安定되어가는 大學을 승두리체 흔들어 놓았다. 事變中 李智皓 교수는 空軍士官學校의 文官敎授로서 地理學을 士官學校에서 講義하였다.

1958년에 처음으로 현재의 社會科學大學의 前身인 文理科大學에 地理學科가 창설되기까지 師範大學의 地理科는 敎師養成과 地理學者 양성의 二重 使命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1958년 이후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敎授

도 이러한 전통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기 때문에 李智皓교수는 地理學과 地理教育 양면에 많은 弟子를 양성하게 되었다. 八城 李智皓 教授 停年退任 紀念論集인 「韓國의 人口와 聚落研究」에는 서울大學校에서 指導한 碩士學位論文 29편과 本人의 主要論文이 수록되어 있다. 29편의 筆者中 17名이 현직 大學教授이고 2名이 研究所 研究員이라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八城 李智皓 교수는 서울大學校 外에도 梨大, 高麗大, 建國大 등에서 大學院 學生을 指導하였으므로 學問的인 영향은 훨씬 더 깊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李智皓 교수는 人口, 村落, 都市地理 分野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고, 本人의 研究論文과 위에서 言及한 弟子들의 碩士論文 題目에 잘 나타나고 있다. 初期에서부터 末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關心을 가졌던 分野는 人口이고, 특히 그 增減과 地域의 分布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人口問題, 人口統計에 관심이 깊었고, 統計全般에 대해서도 1948년에 「韓國地理統計」와 「世界地理統計」를 내는 熱情을 보였다. 人口의 地域的 特性에 깊은 關心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人口의 構造와 成長, 世界의 可容人口, 過剩人口, 말사스의 人口論과 人口問題 등을 初期에는 人文地理學 講義內容에서, 後期에는 독립된 人口地理學 강의를 教育課程에 設치하여 停年에 이르기까지 강의하였다. 人口에 대한 關心은 자연적으로 그 集中場所인 村落과 都市에 이어졌다. 「人口地理學」과 같이 「都市地理學」「聚落地理學」강의를 시작했으며, “韓國의 風土와 生活樣式”, “韓國의 都市化와 問題” 등의 論文을 내는 한편, 이 분야에서 많은 弟子를 길러냈다. 村落과 都市에 대해서는 多方面的 關心을 보이고 있는데, 村落에서는 人間과 環境과의 關係, 都市에서는 人口와 地價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1970年代 후기부터는 歷史地理的인 관심을 보여 주고 있으며, “韓國茶業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을 발표한 바 있다.

系統地理的인 接近外에 韓國地理에 대한 關心과 研究는 본인의 八城이라는 雅號에서도 잘 알 수 있다. 李智皓 교수는 現地踏査에 남다른 情열을 보였다. 平壤師範學校 在學時節에 이미 自轉車로 黃海道의 各郡을 모두 踏査한 바 있으며, 郡廳에서 資料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에 連行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地域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 의욕은 全 生애를 통해서 其칠 줄을 몰랐다. 새로 鐵道가 開通되면 반드시 試乘하면서 그 地域의 번모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고, 停年 후에는 自家用으로 全國의 舊邑聚落을 거의 전부 踏査하는 老益壯을 과시하기도 했다. 約 40年間의 서울大學校 在職期間中 계속 韓國地誌를 강의하였으며, 그 結果를 늦게나마 著書로 남기려는 努力이 結實을 보지 못한채 他界한 것이 本人은 물론 學界를 위해서 아쉽기 짝이 없다.

大學에서의 教師養成과 동시에 中·高等學校의 地理教育에서 李智皓 교수는 많은 影響을 미쳤다. 解放後 軍政廳에서 教授要目을 발표한 1948년 이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高等學校에서 교과서로 사용한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을 陸芝修 교수와 公저로 내놓았고, 그후 계속하여 中·高等學校의 사회과 지리 교과서와 사회과 부도를 출간하였다. 文敎部의 初·中·高等學校 教育課程 審議委員·獎學委員을 歷任하였으며 또 中等教師 檢定試驗委員, 中等教師 再教育을 위한 講習 등에서 主役을 담당하였다.

學會活動에서는 大韓地理學會의 終身會員이며 초창기부터 學會育成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65년 에서 1969년까지는 大韓地理學會 會長職을 맡아 學會誌發刊에 盡力하였다. 社會活動으로서는 人口問題研究所 理事, 國土綜合計劃審議委員, 人口調節審議委員, 國立公園審議委員, 建設部 地理院 韓國地誌編纂委員長, 內務部 政策諮問委員 등을 歷任했으며 停年退任時에는 그간의 공로로 國民勳章 牡丹章이 授與되었다.

日帝植民地時代에서부터 第2次大戰, 祖國의 光復, 6·25의 民族의 悲劇, 4·19와 5·16革命 등을 겪으면서도 始終 地理學과 地理教育에 獻身하면서 우리 地理學界의 礎石이 되어 주신 八城 李智皓 교수의 功적을 되돌아보며 先生님의 冥福을 빈다.

(1986년 11월 1일)

► 李智皓 教授 年譜

1919. 5. 28 黃海道 遂安郡 道所面 玉儉里 290番地에서 出生.
1941. 3. 平壤師範學校 卒業
1941. 3~42. 4. 平壤 箕林公立國民學校 訓導
1944. 9. 日本 立正大學 高等師範部 地理歷史科 卒業
1944. 12. ~45. 8. 東洋經濟新報社, 編輯局 記者
1945. 8. 京城帝大 統計學 聽講科 修了
1945. 10. ~1946. 9. 京城女子師範學校 教授
1946. 10.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專任講師
1950. 11. ~53. 5. 空軍士官學校 文官教授 兼任
1954. 6.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助教授
1956. 6.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副教授
1956. 10. 서울大學校 10年勤續表彰(서울大學校 總長)
1956. 5. ~58. 5. 大韓地理學會 副會長
1960. 1. 綠條勳章(大統領)
1962. 12.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1965. 5. ~69. 5. 大韓地理學會長
1972. 8. 캐나다 開催 I.G.U. 總會에 韓國代表로 參席
1972. 9. 日本 地理學會 秋季大會 參席
1976. 10. 서울大學校 30年勤續表彰(서울大學校 總長)
1981. 7. 韓日 洞窟探查 學術大會 參席
1984. 8. 國民勳章 牡丹章(大統領)
1984. 8.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教育學科 教授 停年退任
1984. 12.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1986. 9. 3. 別世

► 論文·其他

1955. “京畿地方의 人口現象,” 「京畿道誌」, 上卷, 京畿道 道誌編纂委員會, 125-150.
1962. “韓國의 風土와 生活樣式,” 「現代人 講座(韓國의 發見)」, 별권, 博友社, 55-71.
1962. “南韓人口의 增減形態,” 「統計局 調查月報」, 제 8 호, 統計局, 1-11.
1963. “圈域形成의 合理化 및 意義와 形成現況,” 「國土計劃論總集」, 제 1 집, 建設部, 131-183.
1963. “韓國의 人口問題와 聚落配置,” 「國土計劃論總集」, 제 1 집, 建設部, 31-70.
1965. “Geography of Korea,” 「Korea」, 1, 學園社.
1966. “韓國의 土地와 人口構造,” 「合同年鑑」, 合同通信社,
1966. “南韓의 人口增減形態,” 「서울大學校 研究業績概要」, 제 1 집, 서울大學校, 6.
1967. “韓國의 產業과 人口問題,” 「合同年鑑」, 合同通信社.
1969. “韓國의 資源과 國土開發,” 「中央年鑑」, 中央日報社.
1969. “人口調節策,” 「우리나라의 人口調節에 關한 對策」, 無任所長官室, 49-76.
1975. “韓國의 地域別 人口增減에 關한 研究: 1960년대의 人口이동과 關한하여,” 「地理學과 地理教育」, 제 5 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연구실, 48-74.

1976. “韓國의 都市化와 問題點,” 大學新聞, 제 980호, 서울大學校.
 1977. “韓國茶業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제 7집, 1-18.
 1983. “韓國의 地域別 人口增減에 關한 研究: 1970年代 前期의 경우,” 「地理學과 地理教育」, 제 13집, 1-9.

▶ 主要著書

1948. 「韓國地理統計」, 同志社.
 1948. 「世界地理統計」, 同志社.
 1954. 「世界地理統計」, 民教社.
 1958. 「地圖의 研究」(공저), 乙酉文化社.
 1960. 「韓國의 土地와 人口」, 統計局.
 1972. 「國土와 地圖」(공저), 寶晉齋.
 1973. 「韓國의 地理」(공저), 世界大百科事典, 太極出版社.
 1973. 「韓國의 產業과 國土開發」, 建設部.
 1973. 「韓國의 人口問題와 解決策」, 無任所長官室.
 1982. 「韓國行政地名史」, 內務部.

▶ 遺 族

妻	河	乙	仙
長男		重	鉉
長女		蕙	鉉
次女		蘭	鉉
次男		禹	鉉